

 **마태 13** 

| | |
|--------------------------|---|
| 1. 씨 뿌리는 자의 비유..... | 2 |
| 2. 비유의 목적..... | 3 |
| 3. 비유의 설명..... | 4 |
| 4. 알곡과 가라지 비유..... | 5 |
| 5. 겨자씨 비유..... | 5 |
| 6. 누룩 비유..... | 5 |
| 7. 대언과 비유..... | 6 |
| 8. 가라지 비유 설명..... | 6 |
| 9. 숨겨진 보물 비유..... | 6 |
| 10. 비싼 진주 비유..... | 6 |
| 11. 그물 비유..... | 7 |
| 12. 왕께서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심..... | 7 |

1.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 13:1)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마 13:2) 큰 무리들이 그분께로 함께 모여들므로 그분께서는 배에 들어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서 있더라.

(마 13:3)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

(마 13:4) 뿌릴 때에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매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마 13:5)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내나

(마 13:6)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고

(마 13:7)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지매 가시나무들이 돋아나 그것들을 숨 막히게 하였느니라.

(마 13:8) 그러나 다른 것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지매 얼마는 백 배, 얼마는 육십 배, 얼마는 삼십 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마 13:9)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막 4:1) 그분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큰 무리가 그분께로 모여들므로 이에 그분께서는 배에 올라가 바다에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땅에 있더라.

(막 4:2)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자신의 교리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막 4:3) 귀를 기울이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막 4:4) 뿌릴 때에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공중의 날짐승

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막 4:5)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을 내나

(막 4:6)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

고

(막 4:7)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지매 가시나무들이

자라서 그것을 숨 막히게 하

므로 그것이 열매를 내지 못하였

고

(막 4:8)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매 싹을 내고 자라서 열

매를 맺어 얼마는 삼십 배, 열

마는 육십 배, 얼마는 백 배를

내었느니라, 하시고

(막 4:9) 또 그들에게 이르시

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

어다, 하시니라.

(눅 8:4) 모든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분께 나아오매 그분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눅 8:5) 씨 뿌리는 자가 자기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밭히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을 먹어버렸고

(눅 8:6)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을 냈다가 수분이 부족하므로 곧 시들어 버렸고

(눅 8:7)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지매 가시나무들이 그것과 함께 돋아나 그것을 숨 막히게 하였고

(눅 8:8)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매 싹을 내서 백 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2. 비유의 목적

(마 13:10) 제자들이 나아와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매

(마 13:11)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마 13:12)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 13:13)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마 13:14)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 13:15)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느니라.

(마 13:16)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으므로 복이 있도다.

(마 13:17)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

(막 4:10) 그분께서 홀로 계실 때에 그분 주위에 있던 자들이 열두 제자와 함께 그 비유에 대하여 그분께 여쭙매

(막 4:11)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로 행하여졌나니

(막 4:12)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사 언제라도 그들이 회심하여 자기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눅 8:9)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쭙어 이르되, 이 비유는 무엇이니까? 하매

(눅 8:10)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3. 비유의 설명

(마 13:18) 그런즉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마 13:19)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어 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마 13:20)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곧 그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마 13:21)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마 13:22)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하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마 13:23)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백 배, 얼마는 육십 배, 얼마는 삼십 배를 내느니라, 하시니라.

(막 4:13)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막 4:14) ¶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막 4:15)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에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니라.

(막 4:16) 또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막 4:17)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요,

(막 4:18)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막 4:19)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막 4:20)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얼마는 삼십 배, 얼마는 육십 배, 얼마는 백 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눅 8:11)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눅 8:12)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눅 8:13)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눅 8:14)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눅 8:15)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4.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마 13:24)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마 13:25)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마 13:26)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마 13:27) 이에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매
 (마 13:28)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니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거늘
 (마 13:29)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마 13:30)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시니라.

5. 겨자씨 비유

| | | |
|---|---|---|
| <p>(마 13:31)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마 13:32)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으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시니라</p> | <p>(막 4:30)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혹은 무슨 비교로 그것을 비교할까? (막 4:31) 그것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땅에 뿌릴 때에는 그것이 땅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되 (막 4:32) 뿌린 뒤에는 그것이 자라서 모든 채소보다 크게 되며 큰 가지들을 내므로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그늘 밑에 깃들이느니라, 하시니라.</p> | <p>(눅 13:18) 그때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같은가? 내가 그것을 어디에 비길까? (눅 13:19)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매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하시고</p> |
|---|---|---|

6. 누룩 비유

| | |
|---|---|
| <p>(마 13:33)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 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p> | <p>(눅 13:20) 또 다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눅 13:21) 그것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 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p> |
|---|---|

7. 대언과 비유

(마 13:34)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마 13:35)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막 4:33) 그분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막 4:34)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따로 있을 때에 모든 것을 풀어 자기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더라.

8. 가라지 비유 설명

(마 13:36)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멀리 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매

(마 13:37)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마 13:38)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마 13:39)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마 13:40)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마 13:41)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마 13:42)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마 13:43) 그때에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9. 숨겨진 보물 비유

(마 13:44)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 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10. 비싼 진주 비유

(마 13:45)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마 13:46)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11. 그물 비유

(마 13:47) ¶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마 13:48)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모아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마 13:49)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마 13:50)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13:51)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매
 (마 13:52)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마치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12. 왕께서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심

| | | |
|---|---|--|
| <p>(마 13:53) 예수님께서서 이 비유들을 마치신 뒤에 거기를 떠나 (마 13:54)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지혜와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얻었느냐? (마 13:55)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세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마 13:56)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하고 (마 13:57)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p> | <p>(막 6:1)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막 6:2) 안식일이 되어 그분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냐? 그가 받은 지혜가 어떠한가에 그가 자기 손으로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느냐? (막 6:3)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세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막 6:4) 그러나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막 6:5) 거기서는 어떤 능력</p> | <p>(눅 4:16)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사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눅 4:17) 섭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 드리거늘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일렀으되, (눅 4:18)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 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눅 4:19) [주]의 받아 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눅 4:20) 그분께서 책을 덮어 섭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p> |
|---|---|--|

느니라, 하시고
 (마 13:58) 그들이 믿지 아니
 하므로 거기서는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
 시니라.

있는 일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몇몇 병든 자에게 안수하
 여 그들을 고치실 뿐이었으며
 (막 6:6) 그들이 믿지 아니하
 므로 이상히 여기시고 마을들
 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
 라.

았으시매 회당에 있던 모든
 자들의 눈이 그분에게 고정
 되거늘

(눅 4:21)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 성
 경 기록이 이 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니

(눅 4:22)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
 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라
 서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더라.

(눅 4:23)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분명히, 의
 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 한
 이 격언을 내게 말하며, 우리
 가 들은바 네가 가버나움에
 서 행한 모든 일을 여기 네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하시고

(눅 4:24) 또 이르시되, 진실
 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대언자도 자기 고향에
 서는 인정받지 못하느니라.

(눅 4:25) 그러나 내가 너희에
 게 진실을 말하노니, 엘리야
 시대에 삼 년 육 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두루
 큰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스
 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
 되

(눅 4:26) 엘리야가 그들 중
 아무에게도 보내어지지 아니
 하고 오직 시돈의 도시 사렘
 다에 사는 한 과부 여인에게
 만 보내어졌으며

(눅 4:27) 또 대언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들 중 아
 무도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하시니라.

(눅 4:28)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들을 듣고 진노가 가득하여

(눅 4:29) 일어나서 그분을 도시 밖으로 밀어낸 뒤 자기들의 도시가 세워진 산의 낭떠러지까지 그분을 끌고 가서 그분을 거꾸로 떨어뜨리려 하되

(눅 4:30) 그분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자기 길로 가시니라.